

태국소설을 통해 본 태국 여성의 의식 변화:

1930-19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김 영 애**

I. 서론

전통적으로 태국에서 문학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문자 교육이 남성-왕실이나 귀족층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목적은 관료로 등용되는 것이었다. 그래야 한 가문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안정된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의식 속에서 여성은 “코끼리 뒷다리” 또는 “물소”로 비유되면서 남성들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았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에 의탁하는 삶, 즉 삼중지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교육받았다. 이러한 여성은 ‘자기’가 결여된, 늘 남성에 예속된 다시 말해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팔리거나 강제 결혼도 반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

태국에서 소설은 19세기 말 서양으로부터 해외유학생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개념이다(Boonleua 1986: 135). 전부터 서사문학(니야이)이 있었으나 서구유학생들이 귀국한 이후에 소설(나와니야이)¹⁾

* 이 글은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지원금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yoaikim@hanmail.net

1) ‘나와’라는 태국어는 ‘새롭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니야이’에 상대되는 단어인 ‘나와니야이’는 서양의 ‘Novel’이라는 단어에 대신하였다.

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유학생을 비롯하여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1920년부터 신문과 잡지를 만들거나 그 일에 종사하였다. 특히 1920년대 말부터는 의무교육의 시행으로 문자해독층²⁾이 급속히 증대하였고, 기존의 지식인층에 상대되는 서민출신의 신지식인(푸디 마이)³⁾이 탄생하였다. 1930년대에는 이 신지식인들도 문학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는 아직 언론인이나 작가로 등단한 여성의 수가 극히 적었지만 신여성들의 소설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했다. 그 당시 작가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당시 현실을 소설 속에서 반영했으므로 사회와 소설과의 깊은 관계를 드러냈다.

본 글은 시기적으로 1929년부터 1970년대 사이에 발표된 태국소설을 중심으로 태국여성들의 자기 찾기 과정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이 짐승이나 물건 또는 노리개가 아닌 인간임을 주장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남성과 대등한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여성의식의 변화 - 결혼 및 기존 가치관 등 기존 관습에 대한 도전과 경제 발전에 따른 변화 - 및 그 과정을 살피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태국소설을 통해 본 태국여성의 의식변모를 체계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2) 1932년 통계에 따르면 당시 전 국민의 30% 정도가 문자를 읽을 수 있었으며, 취학연령에 있는 아동의 1/2 정도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Udom Rungreuangstri. *Saphabwannakamthaipajuba*(태국현대소설현황). Bangkok: Silapabannakhan. 1980. pp. 84-85 참조.

3) ‘푸디’는 전통적인 양반을 의미하나 태국의 경제발전예 따라 전통적인 양반에 버금가는 새로운 중산층이 생겨 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신중산층을 두고 작가 덕마이쑤은 소설 속에서 “푸디 마이”라고 불렀다.

II. 고전문학에 나타난 여성상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태국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고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사회였다. 한 가정에서 결정권은 가장만이 행사할 수 있었고, 아내나 딸 등은 가장의 결정에 좌지우지되었다. 쑤코타이 시대의 여성들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체로 성별의 차이를 근거로 남성은 바깥일을, 여성은 집안일을 했다. 그러므로 여성은 훌륭한 가정주부로, 남성은 가장으로 교육되었으며 가문의 승계는 남성에게 의해 이어졌다. 상류층 남성은 처첩을 거느릴 수 있었으므로 일부일처가 보통인 서민층의 여성보다 상류층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성(아내) 중에서도 정실의 지위와 권한은 어느 정도 보장받았지만 첩의 지위와 권한은 남편의 사랑이나 친정의 지위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남편이 여러 명의 첩을 들여도 아내들은 불평은커녕 싫은 내색조차 못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은 “남자는 사람, 여자는 물소”라는 사회인식 속에서 대부분이 글도 배우지 못했다. 운명에 순응하고 남성에게 복종하며 살도록 교육되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여성들은 평생을 삼종지도와 정절관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은 항상 가장의 눈 밖에 나지 않고 타인-어른과 남편의 께를 받으려는 노력 속에서 살았다.

아유타야 시대에는 여성은 가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특히 가장은 딸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었다. 가뭄이나 홍수 또는 빛으로 집안이 궁색해지면 가장은 딸을 일시적 담보나 노예로 팔았다. 딸은 그렇게 팔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다.⁴⁾ 고전

4) 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교육된다. 아들은 출가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한다. 즉 출하면 그 복덕이 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집안이 가난해지면 승려로 출가할 수 없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길이 없는 여성은 다른 방법-과거에는 노예나 담보가 됨으로써, 현대에는 거리의 여자가 되어

문학 『쿤창과 쿤팬의 이야기』의 깨우끼리야는 빗 대신 담보로 잡혀있는 여성-관료인 아버지가 공금을 사용하고 갚을 길이 없자 갑부 쿤창에게 딸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꾸어다 공금을 채워 넣었다. 언젠고 그 원금과 이자가 준비되면 쿤창에게 빚을 갚고 딸을 찾아가는 것이다. 결혼도 여성의 선택이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장이나 집안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클룸통촌”(이하 중매결혼)이라는 전통을 따라야 했다.

특히 상류층의 딸은 부모나 집안이 허락하는 남성에게 시집을 가야 했다. 보통 부모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 집안보다 높은 집의 자제나 동등한 집안으로, 또한 딸의 행복이 보장될 거라는 판단아래서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집안의 체면과 권위를 세워나가기도 했다. 특히 왕족은 혈통을 지키고자 근친결혼도 불사하였다(Boondeom 1976: 62).

여성교육은 어렸을 때에 일차적으로 어머니에 의해 집안에서 이루어졌다. 상류층의 딸들은 끈쪽⁵⁾을 한 이후에 왕족의 가정으로 보내져서 왕실의 예의법도를 익히는 교육을 받았다. 크릿 뿌라못(MRW. Kukrit Pramoj)의 자서전적 소설이라고 평가되는 『씨팬딘』의 여주인공 플러이는 전에 어머니가 처녀시절에 모시면서 교육을 받았던 왕족에게 보내져서 왕실의 예의법절을 비롯하여 음식 및 살림 등 요조숙녀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익힌다. 이러한 상류층의 교육 방법은 서양의 영향을 받아 서양식학교가 방콕에 생기기 전까지 지

가죽을 부양함으로써 효도한다고 생각한다. Botan. *PhuyingkhonmancheuBoonrot*(그 여자 이름은 분릿). 1981. 참조.

5) 태국의 어린이들은 출생한 이후 정수리 부분의 머리는 남겨두고(쪽) 주변의 머리카락은 모두 깎는다. 이러한 머리 형태는 어린이가 7-12세 정도까지 유지되며, 적당한 시기에 길일을 잡아 ‘쪽’을 깎는 의식, 즉 “끈쪽”을 한다. 유아기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끈쪽 이후 남아들은 출가하여 사원에서 승려를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에 들고, 여아들은 가정에서 요조숙녀가 되고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수업을 어머니로부터 받기 시작한다. 여아들은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다.

속되었다. 근대화의 바람이 불며 여성도 문자 교육을 받게 되었으나 아직은 겨우 글을 읽고 서명을 할 정도였다. 여성들은 아무리 글을 많이 배워도 결국에는 부엌에 들어가 살림을 해야 해서, 또 남성처럼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부모의 인식 때문이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내용은 윤리교육을 비롯하여 남편이나 오빠의 시중들기, 집안 살림, 아름다운 외모 가꾸기, 지수를 비롯하여 웃어른 모시기, 아랫사람에게 베풀기, 자녀교육 등 현모양처, 즉 “매 씨르언”이 되기 위한 교육이었다. 또한 절대로 남편의 외도에 투기하지 않으며 정조를 지키도록 훈련받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이 비록 남편보다 지혜나 능력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해도 그 내색을 하지 않도록,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도록 교육받았다.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딸,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와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교육이 강조된 것이다. “남편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깃발이다. 그러므로 하늘같이 남편을 받들어 섬기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며 공손하게 대하라. 여성은 늘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며 예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는 속에서 집안 살림을 잘하고 일가 친척간의 화목을 깨지 말아야 한다”(Apirak 2005: 130-133)라고 교육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이러한 의식을 바꾼 사건이 라마 4세 때 일어났다. 여성이 원하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암탱 르언” 사건(1863)과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암탱 쨌” 사건(1867)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라마 4세는 20세 이상의 여성은 원하지 않는 결혼을, 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부모의 강압에 의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칙령과 노예출신이 아닌 아내가 노예로 팔리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남편은 아내를 노예로 팔지 못한다는 내용과 15세 이상의 자녀도

자녀의 동의 없이 노예로 팔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칙령을 내렸다 (Saisamorn 1986: 20).

비록 라마 4세의 칙령으로 20세 이상의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 사랑에 따라 배우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으나 사회는 크게 환영하지 않았다. 사회는 여전히 『쿤창과 쿤팰의 이야기』⁶⁾에 나오는 여성, 특히 아내의 도리 및 의무를 강조하고 교육했다.

어려서부터 널 수백 번 수천 번 가르쳐 오지 않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것뿐이라는 것을...
항상 조신하고 겸손하게 처신해라.
그러나 남이 널 넘보고 괴롭히지 않도록 해라.
남편에게 성실하고 어려워해라...
남편의 뜻을 받들어 봉양하고 시중을 들어라.
정신을 차리고 신경을 써서 집안일을 보살피라...

(라마 2세 2010: 124)

위는 쿤팰과 핼의 아들인 프라와이가 피찻성주의 딸 씨말라와 혼인하던 날 씨말라의 어머니가 딸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전통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은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키고 집안에서 삼종지도의 덕목을 지키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도리는 바로 당시 남성이, 또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이었다.

6) 17세기 태국의 쉰판부리와 간짜나부리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가 구전되다가 19세기 중엽에 라마 2세 당시 왕과 궁정시인들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춘향전』에 견줄 수 있다.

Ⅲ.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상과 여성의식: 1929-4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의식의 변화는 여성교육의 보급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은 태국의 근대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태국의 근대화는 왕의 주도하에서 19세기 중엽부터 이루어졌다. 당시 태국사회에서는 “근대화=서구화=개화”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양의 문화에 익숙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바로 개화된 지식인의 모습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 속에서 왕족과 지배계층은 딸들에게 신식교육, 즉 서양식 교육을 시키게 되었다.

라마 4세는 왕실 내 여성교육을 위해 영국에서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병행하였다. 왕실 여성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어 여성을 위한 학교인 룡스쿨쭈난타라이가 1880년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영국에서 온 영국인 교사 3-4인, 영국에서 교육 받은 태국인교사 2-3인이 가르쳤으며, 1기 학생은 8명이었다. 왕족여성을 위한 학교였던 이 학교의 초창기 교육내용은 영국식 문화 외에 와이(태국식 인사법, 대등한 관계), 끄랍(엎드려 절하기, 주종관계), 법화오(엎드려 왕에게 절하기, 군신관계) 등 전통적인 왕실 문화도 병행해서 가르쳤다.

이 학교는 1904년에 룡리안라치니로 개명하고 여성교육에 앞장섰는데, 교육내용은 태국어와 영어 또는 프랑스어 외에 음악, 그림 그리기, 바느질, 자수, 뜨개질, 꽃 공예 등이었다. 이어 방콕 내에도 가톨릭선교단에서 많은 학교를 세워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는 물론 태국 상류층의 자녀교육을 전담하였다.⁷⁾ 1900년 초에는

7) 당시는 아직 태국어로 ‘학교’라는 의미를 가진 ‘룡리안’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므로 영어의 ‘school’을 그대로 썼다. www.sakulthai.com/DSakulcolumnndetailsql.asp?... (2011년 4월 6일)

8) 이러한 학교로 Assumption Convent School(1905), Santa Cruz Convent School(1906),

이러한 교과과정으로 교육하는 여학교들이 많이 설립되었고, 1913년에는 여교사 양성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여성교육은 뜻있는 서민의 자녀들에게도 전파되었다.

본격적인 여성의 문자교육은 라마 6세가 의무교육법을 공포하고 (1921) 만 7-14세의 아동은 4년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서민의 자녀들은 소수였지만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서구문물의 도입과 습득이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터득한 상류층 부모들은 자녀들을 상급학교-서양식 신식학교에 보냈다.

1920년대 서양식 상급여학교의 교과과목에 외국어가 들어간 사실은 외국어의 구사능력이 당시 신여성의 필수여건이었음을 간과할 수 있다. 대부분이 방콕을 위시한 대도시에 거주하던 부모들은 다소 차이는 있어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딸에게 신식교육을 시켰다. 부모들은 집안의 능력에 따라 자녀교육, 특히 여성교육에 주력했는데 그래야만 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배우자를 찾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신지식인 젊은이들은 사회를 반영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인 또는 작가라는 직업을 선호했다. 신문과 잡지들이 앞을 다투어 서양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정리와 기사를 실었고 아울러 민주주의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느리지만 알찬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Sukanya 1977: 102-103). 이들에 의한 신문소설이나 소설은 신지식인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소설이 성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독자의 관심을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 선함과 악함, 미와 추, 희망과 좌절 등이 서로 얽히어 이야기를 이끌어

Saint Joseph Convent School(1907), Saint Francis Xavier Convent School(1925) 등등 많다.

나가는 모습은 바로 독자 자신과 이웃의 서로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함으로써 재미도 느꼈고 아울러 배우기도 했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멈짜오 아깃담경 라피팻(MJ. Akaddamkeong Raphipat, 1905-1932), 씨부라파(Sriburapha, 1905-1974), 덕마이쑈(Dokmaisot, 1905-1963)은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당시 태국의 왕족과 귀족층 그리고 서민층의 현실을 그려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피력하고 호소하였다. 이 3인의 작가는 신식명문학교를 졸업한 주인공을 설정하여 당시 태국인의 삶과 의식을 현실감 있게 소설에 녹여 담았다. 작가들은 조금씩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는 했지만 일부일처제를 비롯하여 남녀평등, 여성의 신식 교육, 여성의 사회활동, 여성의 취업, 자유로운 이성교제 및 결혼 그리고 이혼, 사회봉사활동 등을 소설 속에 구현하며 여성해방을 주장하였다.

신식교육을 받은 소위 신여성들을 통해 작가는 당시 소설 속에서 전통적인 결혼방식을 거부하고 자유연애에 의한 배우자 선택, 일부다처제의 거부와 일부일처제 주장, 여성의 사회적 위상의 향상과 사회진출, 그리고 가정 내에서 딸, 아내, 어머니의 위상 변화 등을 담았다.

1. 자유연애결혼 주장과 일부다처제의 부정

여류작가 덕마이쑈는 다른 작가와 달리 신지식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유연애, 여성의 가치, 여성의 직업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폈다. 자유연애사상은 『삿뜨루 킹 짜오런』(1929)에 처음 등장하여 당시 독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 후 그녀의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은 모두 자유연애 결혼을 한다. 그녀는 이 소설을 발표하여 태국 전통사회에서 고수해 오던 중매결혼을 거부하고 “자신의 배우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다”는 자유연애사상과 여성의 신식

교육수혜 필요성을 피력함으로써 태국 사회의 주목을 끌었고 후배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미국유학생을 여주인공으로 설정했다. 10살 경에 마유리는 먼 친척오빠인 뿌리송을 무척 따랐고 두 아이 사이가 각별했으므로 부모들은 정혼했다. 그 후 마유리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갔다가 12년 만에 귀국한다. 그녀는 남녀평등과 자유로운 교제를 주장하는 처녀로 성장했다. 뿌리송도 프랑스에 유학한 후 귀국해서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었다. 두 사람은 12년 동안 전혀 만나지 못했다. 그 후 뿌리송 아버지는 뿌리송과 마유리의 혼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 편지를 마유리 아버지에게 보냈다. 그 편지에 대한 마유리 아버지의 답장 내용은, 비록 마유리 아버지가 간곡하게 쓰긴 했어도, 마유리의 결혼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자네 보기 부끄럽네. ... 고집쟁이 내 딸은 뿌리송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약혼 사실도 기억하지 못 하는 것 같네... 내가 자네 아들과 한 약혼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그 약혼을 기억도 못 한다며) 옛날식 결혼(클롬통촌)이 시대에 뒤진 거라고만 했네. 내가 아무리 타이르고 구슬려도 도무지 듣지를 않네. 도리어 내가 자네 아들과 결혼을 강요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네... 내 딸 머리 속은 미국 애와 똑 같네... 이 시점부터 나는 자네 아들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음을 허가하네. ... 그러나 내 딸은 자네 아들의 허락이 없는 한 결혼을 못하네 (Dokmaisot 1972: 2-3).

위의 인용문 내용으로 보면 마유리는 10살 때 자기가 오빠랑 결혼한다고 즐겼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10여 년간 약혼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에 즉각 반대하며, 얼굴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하느냐고, 결혼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배우자는 자신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배우자를 결정하는 여성은 덕마이쑷의 소설에는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쌈차이』의 팻차리, 『푸디』의 위몬, 『능 나이 러이』의 아농, 『우뭇띠헛』의 쑤타리 등이 있다. 특히 팻차리는 아버지가 골라 준 남성(관료)을 마다라고 장사판에 뛰어든 남성 랏과 결혼한다. 관료 우선의 사회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판단이다.

자유연애 외에 일부다처제에 대한 병폐와 일부일처제를 주장하는 작품도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아갓담껁은 소설 『라컨 행 치윳』에서 남주인공 위쑷과 여자친구 랏쭈언의 입을 통해 일부다처제의 병폐에 대해 규탄하고 일부일처제를 주장한다. 작가는 가족 간의 사랑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이라며 부모의 균등한 자녀 사랑이 부모의 의무임을 일깨워 주었다. 십여 명의 첩이 있는데도 어린 여성이 아버지의 여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며 성장한 명문대가의 아들과 딸들은 그러한 관습을 부정하며 스스로 불우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자가 싫어! 증오해! 오늘날 교육 수준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남성들의 의식을 바꾸지는 못했어... 우리나라에 일부일처제 시행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후손에게 꼭 다행한 일이 될 거야. 아내가 여러 명인 집안을 봐! 그런 집은 하나같이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니?(Akaddamkeong 1983: 51-53).

위쑷은 일부다처제가 자녀들에게 주는 병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녀들을 당당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사랑으로 보살피고 감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공정하고 불균등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불량한 아이로

성장한 아이는 대부분 어려서부터 버려진 아이이다. 이런 애들은 자신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공정함과 사랑에 굶주리며 성장하게 되어 결국에는 성격이 삐뚤어지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된다. 고집이 세고 소견이 좁으며, 세상을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게 되고 자신은 물론 남을 믿을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게 된다. 허무주의자나 냉소주의자가 된다(Akaddamkeong 1983: 3).

그러나 작가들은 모두 여성의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있다. 덕마이쉴은 『푸디』에서 생모를 대신하여 교육을 시키던 쿠쉴을 통해 여성의 몸가짐과 명예에 대해 가르쳤다. “여성은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외간 남성들은 아버지나 오빠와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해 줄 말이 있단다. 너는 이제 커서 어린애가 아니다.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다. ... 네 나이가 이제 15살이다. 이제 5학년(중학교 3학년 정도)이니까 아직은 누구를 사랑할 나이가 아니란다. 옳지 않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 네가 이성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 널 꾸짖고 비난하지만 그 화살은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와 꽂힌다. ...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더욱 아름다운 것도 아니어서 자칫하면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들 뿐이다. 이름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며 모든 것을 잃는다. 네가 엄마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믿어야 한다(Dokmaisot 1969: 89-90).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도 종래의 가치관을 뒤집었다. 덕마이쉴은 소설 『콰핏 크랑랙』에서 남주인공 뿌라못의 외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작가는 일찍이 아내와 남편은 동고동락하는 인생의 반려자로 보았고, 그래서 첫째 서로 존경하고 돕기, 둘째 서로 비하하지 않기, 셋째 외도하지 않기, 넷째 서로 양보하기, 그리고 다섯째 서로 부족한 점 채워주기 등을 강조하였다. 뿌라못의 외도에 대해 아내

왈라이가 이혼을 선언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관습에 도전하였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자신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동생 아마라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가문 있고 체통 있는 집안의 딸”(Dokmaisot 1970a: 595)로서 자신의 명예 및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남편)이 집에 오자 내가(왈라이) 나와 첩 2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 그가 저쪽 여성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나와 헤어지는 것이야. ... 난 그가 내가 잘 다니는 곳을 찾아다니며 첩들과 희희덕거리며 노닥대는 것을 못 참아서 이혼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거라면 벌써 오래전에 이혼했어.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내 체면을 깎으면서 다니는 거야. ... 왜 (아이)생각을 안 하겠니? 개가 커서 철이 들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와 아버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거야. 지금 첩도 임신 중이란다(Dokmaisot 1970a: 502-506).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면 그 고통을 감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겠지만 왈라이는 이혼결심을 하고 그녀의 아버지 또한 사돈에게 딸의 입장을 설명한다.

남편과 아내는 종종 싸우고 맘이 상하기도 하는 거지요 ... 애비인 나로서는 딸이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뿌라뭇이 와서 내 딸에게 사과하고 딸이 받아들이면 나도 기쁠 것이나 만일 이번에 왈라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난 그렇게 하지 못 합니다. 내 딸이니깐요. 둘이 화해하려고 하면 나는 사돈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윈치 않으니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Dokmaisot 1970a: 516).

위의 말은 “남편이 잠깐 외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부부

가 어디 한 둘이나? 첩을 두고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젊
은 부부 둘은 아마 싸웠지만 다시 화해할 것이다 2-3일 후에 뿌라못
이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화해할” 것이라며 말하는 바깥사돈(뿌라
못의 아버지)의 말에 대한 왈라이 아버지의 답변이다. 남성의 외도
와 축첩이, 비록 백 명의 첩을 두고 있다 해도 본처를 변치 않고
사랑하고 잘 돌본다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전통적 관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목이다. 딸의 이유 있는 이혼에 대해 친절이나
남편의 본기도 동의하는 사실은 시대가 변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다. 이혼을 해도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본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2. 신식교육의 확대와 여성의 역할 및 위상 고양

1920-30년대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식 교육의 기회를 준 이유는
바로 해외유학생 남성들이 외국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줄 알며 사교
모임에서도 빠지지 않는 여성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즉 상류층은 신
식교육을 받은 며느리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부모의 이러한 구색 맞
추기 교육은 딸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 결과를 낳았다. 당시 시류에 안존하는 여성도 있지만 소설
의 주인공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여성으로 거듭남으로써 가
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대등한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성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소유물이나 노리개가 아닌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의식변화는 작품에 구현되었다.

덕마이쉴의 작품을 보면 『삿뜨루 킵 짜오런』의 마유리, 『능 나
이 러이,』의 아농, 『깜 까오』의 늦과 암편은 해외유학생, 『콤포
크랑랙』의 왈라이, 『푸디』의 위몬, 『쌈 차이』의 팻차리와 아룬,
『우밧띠헛』의 쉰타리, 『니래록』의 썬라야와 유파는 모두 컨벤트

출신의 신여성이다. 켄 쑤랑카낭(K. Surangkhanang)도 『쿠 크렁』의 파까와 파염, 『레와디』의 레와디, 『판티파』의 판티파, 『끄렁간』의 끷을 상류층 신여성으로 설정했다. 씨부라파도 『룩 푸차이』에서 람판과 아파를, 그리고 『송크람 치윳』에서는 플런을 모두 컨벤트 출신으로 설정하여 당시 태국사회 상류층 딸들이 대체로 컨벤트에서 교육받은 현실을 반영하였다.

씨부라파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랑을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여성인물을 소설에 투영하였다. 그는 『송크람 치윳』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연인, 라핀을 가슴에 묻은 채 부유한 영화감독과 결혼하는 플런을 그렸다. 그리고 소설 『룩 푸차이』에서도 람판으로 하여금 마넛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만 묻어 두도록 설정하였다. 람판은 자기 가문보다 낮고 가난한 마넛을 부모는 물론 일가친척이 반대할 것이 명백하다는 생각에서 아래와 같이 생각하고 지레 포기한 것이다.

어찌하여 자연은 여성에게 이리도 잔혹할까? ... 왜 세상은 여성이 먼저 사랑을 고백할 권리를 주지 않았던가? 사랑이라는 문제에서 볼 때 여성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 ... 여성은 무던히도 참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다. 일방적으로 이러한 감정과 싸워야 한다. 정말 자연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에게는 불공평하다(Sriburapha 1967: 199).

그러나 여성작가는 자신의 속내를 밖으로 노출하거나 내보이지 않도록 교육받은 전통적 미덕을 과감하게 깨고 있다. 덕마이쑤은 『능 나이 러이』에서 아농이 위차이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도록 설정했다. 이미 아농을 사랑하고 있었던 위차이이었지만 그녀의 사랑고백에 아무 답을 못했다. 자신의 놀람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

며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이었다. 아농보다 15살이나 연상인 위치이는 내심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아농에게서 직접 들은 그녀의 이모 두 분은 아농을 비난하며 힐책한다. 어른들에게는 가십거리이자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참 잘 했구나, 내 조카딸. 그게 신식이나? ... 다른 집 딸이 그랬다면 뭐라 했을까? ... 남성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성이 먼저 사랑한다며 결혼하자고 했으니. 이런 망측한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Dokmaisot 1968: 713)

신식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종래 여성의 덕목이라고 간주되었던 것 대신에 당당하고 자기주장이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소설의 주류를 이루었다. 『깜 까오』의 늦은 “남자처럼 용기 있는”(Dokmaisot 1970 : 54) 여성으로 솔직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그려졌다. 이 신여성들은 분위기나 변화하는 사회에 쉽게 적응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첩하며 판단도 남성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들은 바깥 활동에서 아직 독립적이지 못했다. 외출을 할 경우 반드시 일가친척 남성의 보호 하에 이루어졌다. 여성 혼자 외출하거나 운전을 하는 것은 상류층 어른들 사이에서는 가십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능나이 러이』의 여주인공 아농이 혼자 외출하고 운전도 하는 것에 대하여 해외유학생인 오빠들은 별 말이 없으나 이모 두 분은 그러지 말라고 볼 때마다 타일렀다.

3.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의식 변화

신식 여성 학교교육은 종래에는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되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여성들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

성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기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을 가거나 자영업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특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반대하는 상류층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자기 뜻을 펴거나 아예 무시하는 여성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여성이 갖는 직업은 교사직이 대부분이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는 남성의 직업으로, 그리고 교사나 간호사, 비서는 여성의 직업으로 간주되었다. 자영업을 하는 여성은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였다. 대체로 미장원이나 양장점 등으로 주로 여성과 관련된 업종이었다. 『쿠 크렁』의 파카는 스스로 상업을 택한다.

오늘은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아침부터 집을 나왔다. 파카는 기사 께에게 장사가 잘되는 지역의 상가를 천천히 여러 바퀴 돌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세를 놓으려는 곳을 두세 군데 둘러보았다. 직접 장사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다(K.Surangkanang 1969: 33).

파카는 상류층 부잣집 딸이다. 어딜 가도 늘 여러 명의 수행원이 따라 다니며 시중을 들어주는 신분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탕탈 사람도 없고 평생 먹고 시는데 궁색함이 없는 그녀이지만 장사를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한 후 장소를 물색하던 중 미장원을 내려는 친구 파염에게 투자하고 동업을하기로 결정한다.

덕마이쑷의 소설 『푸디』의 위몬은 집에서 바느질을 한다. 양장점을 낼 재력이 없었으므로 집안의 지출을 줄이는 방편으로 전에 자기 옷을 만들어 주었던 양장점에 청을 넣어 일감을 얻어다 집에서 동생을 키우며 일한다. 과거의 체면은 접어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를 고아 아닌 고아로 만들었고, 집안 정리를 하고 보니 위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 덩그렇게 큰 집, 그리고 영국에 유학하고 있는 남동생뿐이었기 때문이다. 가계 수지를 맞추기 위해 그녀는 자기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바느

질을 한다.

위몬이 바느질품을 파는 것은 그녀가 가게수지를 맞추기 위해 하는 일 중 하나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굶히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신념으로 한다. 그녀는 직접 자기 방을 청소하고 직접 자기 옷을 다리고, 가끔은 동생의 옷도 다린다. 동생을 목욕 시키고, 동생에게 음식 4끼 수발을 들고, 마뚝을 도와 텃밭을 일군다. 나무를 심고 물을 준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다녔던 양장점에 연락을 해서 옷을 받아다가 바느질을 한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녀가 피고용인이 된 셈이다. ... 그렇게 해서 그녀는 하루 평균 50짜퐁⁹⁾을 버는데 동생의 간식비로 지출된다(Dokmaisot 1976: 240).

방콕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상류층 부잣집 딸인 위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습이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대지 않고 하녀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던 그녀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세상 사람이 믿지 않을 정도로 가난한 처지에 놓인다. 그녀에게 닥친 모든 크고 작은 일은 그녀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이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좌절 대신 자신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길을 택했다. 양반(푸디)의 딸로서 자존심을 지켰다. 집은 팔지 않고 세를 놓았으며, 혼자 자립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동생도 무사히 학업을 마치게 한 여성이다.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 남은 돈으로 동생유학비를 낼 수 있었지만 집을 판다는 것은 세간에서 그녀 집안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넓은 집안에 텃밭을 만들어 반찬값을 즐였고 남는 것은 내다 팔기도 했다. 컨벤트 출신의 위몬은 가문의 명성을 위축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을

9) 태국의 화폐단위의 하나이다. 1바트는 100짜퐁임.

함으로써 여성도 가장이 될 수 있다는 능력과 현명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외모가 뛰어난 가난한 집안의 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모델, 영화배우, 무용수, 창녀 등의 직업을 취했다. 『송크람 치윳』의 플룬은 영화배우가, 『잉 콘추어』의 른은 창녀가 된다. 플룬은 가난한 청년 라핀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영화제작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자기가 추구했던 안락함과 배우로서의 명성을 택한다. 반면에 학력이 낮고 가난한 집안의 딸,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는 여성은 창녀로 전락한다. 께. 쑤랑카낭의 소설 『잉 콘추어』 주인공은 유복한 집안의 농촌 처녀 완이었으나 도시에서 온 젊은이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남자를 따라 도망친 여성이다. 결국 그녀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사창가에 팔려짐으로써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른’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녀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 것인가? 우둔하고 소심했던 자기 자신을 탓할 뿐이다. 그녀는 그후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기 죄 값을 치렀다. ... 그녀는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 인간시장으로 쫓겨 들어갔다. ...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내일은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촌년인 그녀에게 희망이 어디 있겠는가? ... 몸과 마음만 순결했지 세상물정에는 어두웠던 시골 처녀는 그만 한 순간의 잘못에 의해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몸 파는 여자” 또는 “창녀”로 낙인이 찍혀 그런 세계로 전락하고 말았다(K. Surangkanang 1969b: 132).

4. 가정 내 여성의 위상의 변화 - 딸, 아내, 어머니

예나 제나 변하지 않는 여성의 제일의 의무는 훌륭한 내조자이자 어머니의 역할이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효도하고, 결

혼해서는 남편의 시중을 비롯하여 자녀를 잘 기르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행복하게 해 줄만한 배우자를 찾아 짝지어주는 일이었다. 여성은 나를 버리고 남편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부모의 전통적인 교육은 가정의 평온함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쌓이는 불만은 어쩔 수 없지만 감내하고 사는 여성이 그려진다. 씨부라과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룩 푸차이』의 람판은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의 교육에 집 안팎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친한 친구에게도 속내를 털어 놓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 갔다. 결국 그녀는 부모가 정해준 남성과 사랑 없는 결혼했는데, 이유는 결혼이 답답한 집안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어느 곳도 정신적인 평온을 찾을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다른 소설 『칸랑 팜』의 끼라띠에도 나타난다. 고위 귀족의 장녀인 끼라띠는 전통적인 법도 있는 교육을 받았다. 컨벤트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명에 따라 친척뻘 되는 왕족을 모셨던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었으나 자신을 표현할 줄 몰랐다. 결국 그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전통적인 삶에, 그녀가 편하게 여겼던 삶에 안주했기 때문이었다. 황금 새장에 갇힌 작고 예쁜 새와 같은 삶을 살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Sriburapha 1986: 209)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람판이나 끼라띠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겁내어 감히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전통적인 관습에서 산 여성이다. 끼라띠의 죽음은 구제도와 구전통, 구가치관의 몰락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 발전과 변화에

따라 자본주의가 일상생활에 도입되면서 배우자를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사랑을 가장 지고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희생도 감수하는 여성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상류층 여성이나 양가집 규수의 경우는 물론 성을 팔아 하루를 살아가는 창녀에게도 가능성을 작가가 그렸고 사회는 이를 인정하였다. 『잉 콘추어』의 른은 직업이 창녀인데, 한 남자-친구에게 끌려 처음으로 그녀의 가게로 놀러온 미혼남 윗과 사랑에 빠졌고 임신을 했다. 그녀의 윗에 대한 사랑과 윗이 떠난 후에 태어난 딸에 대한 모성애는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다.

당신은 저 같은 여자를 잠깐 즐기고 버리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천시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다른 남성과는 달라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저를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으로부터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비록 ‘창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다면 제 소망이나 행복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K. Surangkanang 1969b: 68-69).

창녀는 어느 한 남성의 아내가 될 수 없고,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업여성이지만 사랑과 순수함은 양가 규수 못지 않으며, 어머니로서의 른 또한 나무랄 데가 없음을 사회가 인정한다. 그녀는 윗과의 만남에서 얻은 딸의 양육에 최선을 다 한다. 그녀는 딸을 수수한 가정집에 맡겨 그 집 딸로서 바르고 예쁘게 성장시킨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 송금함으로써 딸의 교육에 투자한다. 창녀이지만 딸에 대한 엄마의 마음은 다른 엄마와 다르지 않다.

른이 낳은 아이는 딸이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교육해야 했다. 적어도 그 딸의 몸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착하게 성장해야 한다. 그녀는 자기 딸만큼은 자기처럼 그릇된 길로 들지

않기를 바랐다, 창녀 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어린 아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깊은 상처가 된다. 고향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소가 좋고 나쁜 것은 꼬리를 보면 알고 딸은 엄마를 보면 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 그녀는 딸에게 자기와 같은 삶을 주고 싶지 않았다(K. Surangkanang 1969b: 225-226).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약하고 남성에게 의존했던 순종적인 여성은 사라지고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상이 나타났다. 여성은 집안 살림은 물론 자녀 양육,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는 이성적이고 영민한 판단력으로 가정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내는 여성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소설이 비록 자유연애, 일부일처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혼전 순결이나 여성의 정절과 어머니로서의 의무 등 전통적인 덕목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IV.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

1950년-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1. 여성 해방 및 남녀동등권을 향한 여성운동

1932년의 입헌군주제 도입은 허울뿐이었다. 1933년에 군부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후 태국은 여러 번의 격변을 거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와 전환기를 맞았다. 피분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피분-싸릿-타넘에 이은 군부의 재집권, 1973년 10월 14일 사건(쌌씨 딸라¹⁰)과 베트남전쟁, 1976년 10월의 유혈사태 등

등의 사건이 태국사회와 태국인의 정신세계를 흔들었다.

2차 세계대전은 방콕 등 태국의 중부지역에 거주하던 태국인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한 대참사였다. 가정적, 개인적으로는 부모 및 일가친척 등 지인들과 자산을 폭격으로 잃는 경험을 해야 했고 국론이 친일과 친서방으로 양분된 혼란 속에서 정치적 존립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종전 이후에는 잠시 민주주의가 오는가 싶더니 다시 피분-쌀릿-타넴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속에서, 또 전후세계적인 냉전체제 속에서 태국인들, 특히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놓고 정부와 대결해야 했다.

피분정부는 강력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정책의 시행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사전검열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새로운 어문정책을 발표했다(Udom 1980: 100-102), 이러한 정부의 처사에 대한 시위행위로 작가들은 절필을 하거나 가정소설, 역사소설 또는 대중소설로 방향을 돌렸다. 또는 아예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기도 했다. 피분은 2차 집권을 하면서 친미노선과 반공노선을 표방했고, 이어 쌀릿의 무단정치는 작가들을 해외망명의 길로 내몰았다. 국내에 남은 작가들은 종래 ‘짜짜윙윙’스타일의 대중오락소설(통속소설)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했다.

또 다른 변화는 피분이 지방문화를 육성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 설립에서 비롯되었다. 방콕에는 까셋삿대학교, 마히돈대학교, 썬라빠껌대학교를 각각 1943년에, 씨나카린위롯대학교를 1949년에 설립하였다. 지방에는 치앙마이대학교와 쾅깐대학교를 1964년에, 송클라대학교를 1967년에 설립하였다. 그 결과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이 두터워지고 사회의식이 고양되었다.

10)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군부(타넴-쁘라팻-나룽)체제를 축출해낸 사건이다. 1973년 10월초부터 14일 사이 약 1주일간 격렬하게 군부와 대립하였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의 발발과 군수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태국경제가 발전하였고, 아울러 씹씨 풀라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 지식인들은 남녀를 불문코 더 큰 목소리로 태국의 변화-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바로 소설에 영향을 주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태국 사회에서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또한 증대된 현실이, 특히 정치 문제와 경제문제, 그리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활동과 이상이 소설 속에 구현되었다.

태국 여성들은 상류층이나 서민층의 구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남성과 똑같이 자유로운 사회와 가정의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다. 가정의 빈부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서양의 문물이 빠르게 태국사회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변화도 매우 빨라 그 변화라는 흐름에 부응하여 배우고 그 흐름에 뒤지면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태국 여성들은 깨닫게 되었다. 전과 같이 엄격한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아울러 자녀교육은 부모의 손에서 떠나 학교 등 사회로 이전되었다. 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하고 사회활동도 했다. 춤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말도 타고 운전도 하는 등 인생을 즐기며 감정표현에도 솔직해지고 적극적이 되었다. 『레와디』에서 레와디는 자신의 마음을 연인 파오텝에게 고백한다.

파오텝, 난 이제 너에게 숨길 게 없어. 공평하든 그렇지 않든 난 지금 말할 거야,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네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네가 우리 관습에 어긋난다고 생각해도, 어느 여자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나는 해. 이미 이렇게 소리 내어 말했잖아(K. Surangkanang 1969a: 555-556).

이에 대해 파오텝은 “세상 관습에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 나 같은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아.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고백을 금지한 것은 지나친 거야. 불공평한 것이지. ... 난 네가 잘 했다고 생각해”라면서 레와디가 옳음을, 레와디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는 그였다.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게도 인식되고 있음을 말한다. 사실 여성의 사랑고백은 소설 『능 나이 리이』에도 나타났다. 그때 아농의 고백을 받은 위치이는 몹시 거북해 했고, 또 아농이 당돌하고 자유분방하기는 해도 자기를 앞질러 결혼하자고 한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다. 이렇게 위치이와 파오텝의 반응이 각기 다른데, 작품이 발표된 시기가 1934년과 1941년으로 8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그 만큼 변한 것이다.

딸에 대한 부모의 교육내용도 달라졌다. 께. 쭈랑카낭의 소설 『반 싸이팅』에서 죽기 직전 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러 앉히고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 풋짜만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애야,... 나는 네가 앞으로 크게 되기를 바란다. 현재 태국 여성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도록 커다오...”(57) 아버지는 풋짜만이 비록 딸이지만, 또 앞으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다녀야 된다고 당부한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학교교육이 최상의 것이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장님과 같다고 일러준다. 이 가르침은 종전에는 아들에게만 했던 가르침이었다.

여성의 고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뒤늦게 여성의 자립에 대해 깨달은 다루니가 여동생 랏차니에게 한 말에서도 나타난다.

불행하게도 난 너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 내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텐데... 네게 말하는데, 너는 누구에게도 네 뜻을 굽히지 말고 일을 해라. 혼자서 자립해. 그리고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단다(Seni 1986: 68).

(랏차니아)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으면 넌 자립도 못하고 자유도 없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돼. 부모님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게 돼. 일하는 건 집안에서 놀면서 집 돈을 쓰는 것처럼 편하지 않다는 건 확실해. 하나 우린 이미 컸고 학교도 졸업했으니까 집에서 빈둥대는 건 말이 안 되지. 난 네 앞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봐. 그건 네가 네 길을 갈 마음을 먹는 거야(Seni 1986: 38).

위는 랏차니아의 언니 다루니와 친구 깡티안의 말이다. 두 내용 모두 여성도 남성에게 못지않게 배워야 하는데, 랏차니아처럼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어른이 시키는 대로 사랑 없는 시집을 가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논지이다. 상류층 집안의 딸인 랏차니아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은행에 출근하게 되고, 그 은행에 소속 변호사로 일하는 싸이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 아버지는 싸이의 집안이 보잘 것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여러 손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망신을 준다. “요즘은 신식이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신분이 맞지 않는 결혼은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라며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고 싸이에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한다. 그리고 상류층 양반은 타고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며, 또 까마귀는 영원히 까마귀이지 절대로 백조가 될 수 없다며 싸이에게 나가라고 면박을 준다(Seni 1986: 291-292). 싸이는 까마귀이고 랏차니아는 백조인 것이다. 랏차니아는 싸이와 농촌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아버지에게, 구체제에게, 전통적인 의식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2. 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여성상

여성의 외모가 최상의 기준이었던 과거의 의식은 여성의 교육수

준이 높아지면서 달라졌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나라의 장래나 사회의 발전에 주목하는 여성이 늘어났다. 도시에 비해 뒤진 농촌에 가서 어린이들을 교육함으로써 나라발전에 기여하고 나라의 밝은 장래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실현하려는 주인공들이 소설 속에 등장하였으며, 외모보다는 능력과 학문의 수준이 여성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콰락 킹 완라야』의 뜨언따에 대해 주변사람들은 “예쁘게 생긴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아주 못 생긴 인물은 아니야. 갠 쫄라롱컨대학교 문과대학까지 졸업했어...”(Seni 1972: 27-28)라며 인물이 빠지는 뜨언따를 혼하지 않은 대학졸업장까지 들먹이며 평가했다. 이처럼 해외유학생 외에 국내대학교 졸업생도 소설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쁘릿싸나』의 뿌릿싸나, 『콰락 킹 완라야』의 완라야, 그리고 『반 싸이팅』의 썽썽 등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성품도 과거의 신경질적이거나 순종적인 성품에서 점차 이성적이고 개성이 강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용기 있게 실천에 옮기는 여성상이 대두되었다. 『삐삐』에서 랏차니는 부모가 지체가 낮은 남성과의 사귀기를 반대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저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충분한 교육도 받았고 세상물정도 알아요. 제게는 집안의 지위나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됴됨이와 착함이에요(Seni 1986: 11).

위는 부모님이 싸이와의 만남을 반대하고 막자 랏차니가 싸이와 농촌으로 가서 교사가 되어 무지한 농촌사람들에게 빛을 주기로 결심한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대목이다.

한편 랏차니의 언니 다루니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결혼했음을 후회한다며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기대에 도전한다.

딸로 태어난 우린 삶이 불행해. 부모와 살면서 부모는 물론 일가 친척의 말에 순종해야만 했는데 시집가서는 남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닌 것은 네가 잘 알거야. 어른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알았어. 그때 난 이미 우리 집이 지켜워져서 결혼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결혼하면 난 어른도 되고 또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야. 하나의 멍에를 간신히 벗어나 더 무겁고 힘든 멍에를 먼저 것 대신 새로 지는 거였어(Seni 1986: 64).

결혼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성의 구애를 솔직하게 거절할 줄 아는 여성들이 나타났다. 『콤파라 킹 완라야』의 완라야는 같이 유학하면서 알게 된 레왓의 청혼을 거절한다. 이유는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당신과 같이 부유하고 고귀한 가문의 남성과 일생을 같이 하는 것은 때로는 싱거울 정도로 순탄한 인생이에요. 그런 삶은 내가 어떻게 죽고, 죽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를 미리 다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건조하고 단조로운 삶이에요. 저는 그런 행복을 원치 않아요. 제 행복은 뭔가를 예상하고 투쟁하고 모험을 하는데 있어요. 제가 말하는 모험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모험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고 모험이지요. 낯을 들고 처녀림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길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이는 사람도 없지만 후에 번영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거예요. ... 저는 자기 자신의 신분상승, 출세, 명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남성과 결혼할 거예요. 미래라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기여할 수 있는...(Seni 1972: 17-20).

예전과 달리 이 시기의 여성들은 배우자에 의해 선택받기 보다는 자기 의사(생의 목표)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가정을 벗어나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교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 간호사, 작가, 은행 사원, 사업가, 그리고 언론인 등의 직업을 택함으로써 남성만이 해야 한다는 사회의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교사는 후학을 가르치고 양성해 낸다는 차원에서 여성의 직업 중 가장 명예롭고 바람직한 직업으로 부상되었다. 『삐삐』의 랏차니와 깡티안, 『콤파라 킵 완라야』의 뜨언따, 『반 싸이팅』의 쏫짜만, 그리고 『쁘릿싸나』의 뿌릿싸나는 모두 교사직을 택한다. 뜨언따는 작품 속에서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교사직이 더 좋아서 교사직을 지원했어. 이유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애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야...”(Seni 1972: 239) 특히 쫄라롱껀대학교에 이어 탐마삐대학교가 설립되며 대학교육을 받는 여성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성의 직업의식은 크게 변했다. 소설 속에서 여의사 등 전문직 여성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군 기지 주변으로 몰려들어 급기야는 창녀로 전락한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다. 이들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효도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든 여성이다. 이러한 1970년대 태국여성의 현실은 『푸잉 콘난 츠 분렛』의 분렛을 통해 나타났다. 분렛은 오빠 분마와 언니 분람이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 분탐, 분씬 그리고 분팅이 있다. 공무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이 기울자 언니 분람이 동생들과 어머니 생계를 위해 도

회지로 나갔다가 미군기지에서 창녀가 되었다. 결국 막 입학한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동생을 돌보던 분릿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따클리에 있는 미군기지 음식점에 취직한다. 늘 자립의 꿈을 갖고 있던 그녀는 남의 집 식모로 나이 먹는 것 보다는 더 큰 사회로 나가 기회를 잡아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못 배운 여성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주인은 물론 기업의 주인이 되고자 노력했다.

분릿은 자매간인 분람과 각기 다른 삶을 살았다. 분람은 현실에 굴복하였으나 분릿은 현실에 도전하여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가정 내 성차별에 도전했고, 태국사회의 불평등구조와 편견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했다. 이 소설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얽매인 분람은 엄마에게 밀려 군 기지의 위안부, 현지처가 되어 집안을 부양하다가 흑인과 백인의 아이 하나씩 낳아 본가에 맡긴 후 건강이 나빠지자 종적을 감춰버린 나약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분릿은 비록 미군공항이 있는 따클리에서 일하지만 어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빵 기술을 배워 자립의 꿈을 키웠다.

나는 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중국인 공장에서 일하게 할 생각은 없다. 분씬아, 너는 스스로 일을 배워라.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해서 빨리 기술을 익혀라. 그리고 절약도 하고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 우리 집은 가진 것은 다 팔았단다. 논밭도 팔았지. 큰딸은 몸도 팔았고 아들들은 짐꾼이 되어 힘을 팔았다. ...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쫄딱 망했어'라고 하는 거 듣고 싶니? 아니면 집안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니? 내가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날보고 "현지처"라고 수근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두렵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집형편이 "현지처"나 "짐꾼"의 집안보다 더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래야 되겠나? 우리는 자립해서 여보란 듯이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식구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해. 알겠나?(Botan 1981: 82)

이 말은 분럿이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국인이 경영하는 선반공장에서 일하는 남동생 분썬에게 이르는 말이다. 가정에서 여성은 주연이자 연출가이다. 분럿은 어머니 이상의 강한 힘으로 자신의 삶은 물론 동생들의 삶을, 미래를 설계하여 마침내 선반공장을 설립했다. 온 식구의 성실한 피땀으로 만들어진 이 공장은 고향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고향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성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으로 그녀는 가난과 싸웠고 집안 식구 및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어 스스로 일어섰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농촌 여성 분럿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노력으로 꿈을 이룬 여성이다. 그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계획과 실천은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며 비난했던 가족들을 설득해서 마침내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고 사랑하는 로버트와 결혼한 그녀는 1970년대 자전적 여성이다. 남성이상의 능력을 발휘한 여성이다.

3. 정치발전과 현실참여

1973년 10월의 썩씨 딸리는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바꾸고 참여의식을 높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정치참여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식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특히 여학생들의 정치의식과 현실참여의식이 증대되었고 여성작가를 포함한 많은 작가들이 이러한 현실을 작품 속에 담았다. 프리썬 교수는 “태국문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Trisilp 1982: 99)라는 글에서 1973년 썩씨 딸리는 여성작가의 글쓰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끄리싸나 아썩썬은 소설 『롬 뽀리안 탕』에서, 씨화는 『콰락 씨플렁』

과 『탐마이』에서, 또 두엥짜이는 『랏타몬뜨리 잉』 등에서 정치변화를 소재로 삼고 태국의 정치변화와 국민들의 적응, 태국의 미래, 즉 사회주의 도입에 대한 우려와 정치풍자를 내포한 소설 등을 발표하였다고 예를 들었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씹씨 툴라와 그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당시 일련의 전개를 그대로 소설 속에 담았다.

그때 대학생들의 시험 기간이었어.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을 보지말자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어.
“우린 붙잡혀 간 친구들이 풀려나기 전에는 시험을 보지 않겠어.” 한 때의 대학생이 썬끄라이에게 말하면서 “선생님, 왜 그들이 학생들을 붙잡아 갔지요? 우리는 헌법을 요구할 권리가 없나요?” 썬끄라이는 그 급진적인 학생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했다. 그가 8일 아침에 학교에 왔을 때 학생들은 시험 보러 강의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일부는 새벽녘까지 학교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늘어 그 수가 증가했다. 썬끄라이는 가만히 서서 학생들이 정부를 공박하고 그런 내용의 풍자 연극공연을 바라보았다(Sifa 1988: 691-692).

우린 교육이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사람간의 격차를 좁힌다고 생각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교육은 대화를 통해 이해하도록 해주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정치가에게 속지 않도록 해주지. 그래서 정당의 정책은 다방면에 걸쳐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해.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지 않아야 돼... 두 번째는 국민복지 또는 사회보장이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은 연금이 있고, 일부 직장에도 있어. 그러나 피고용인이나 농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연금이 없어. 우린 공무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돼(Sifa 1988: 783-784).

위는 씨화의 소설 『피꾼 껌껌깨우』에서 씹씨 툴라 현장을 지켜보는 대학교수 썬끄라이에 대한 묘사이며, 마지막은 국회의원 유세

장에서 목다가 한 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교육을 받아야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하지 않고 대화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분명한 판단을 할 줄 알게 되어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정치가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복지를 생각해야 할 때임을 작가는 목가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다.

툼마얀띠는 소설 『짜뜨리 마이렉 능』을 발표하여 그라시아라는 작은 나라의 영부인 레와띠를 통해 여성의 정치의식은 물론 정치적 권력은 무상하여 어떤 변화든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정치의 방향은 지도자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경제)에 의해 결정지어진다는 것, 그리고 강대국은 늘 약소국의 정치에 간섭한다는 사실 등을 말하며 정치의 속성을 파헤쳤다.

정치처럼 빠르게 흥하고 망하는 직업은 없다. 보통 사람들은 미래가 확정되면 행복하다. 삶이 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는 ... 어느 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 오늘 ... 우리는 대통령관저에 살지만 내일은 ...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올 것이다(Thommayanti 1980: 244).

그라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차이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 ... 작은 나라는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단다. 그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예전엔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보호를 받았고 강대국은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받았지. 어떤 강대국은 값나가고 쓸만한 자원은 모두 가져갔지... 마치 사탕수수의 단물은 다 짜서 가지고 가고 껍질만 남기는 것처럼...(Thommayanti 1980: 180).

위는 영부인 레와띠의 말이고 아래는 레와띠와 친정아버지와의 대화다. 그라시아 같은 작은 나라의 고뇌와 풍전등화 같은 정치적

불안을 당시 태국의 정치적 상황에 빚대고, 정치의 속성은 온 곳에서 가고, 간 곳에서 오며, 늘 바뀌고 변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친정아버지가 그라시아국의 재정을 담당하고, 정치의 돈줄이 되었던 관계로 정치에 대해 익숙한 그녀는 군인인 앓싸리와 결혼하고, 남편 앓싸리가 일으킨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영부인이 되었다. 그러나 앓싸리가 대통령직을 연임하게 되자 갑자기 유류파동이 일어나 물가가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고 또 금값이 치솟았다. 이것은 정적 위마가 언론을 이용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정부전복을 기도했기 때문이었다. 정치 속성을 작가들은 이처럼 레왓띠의 입을 통해 알려 주고 폭로한다.

사실 1932년 이후 태국여성은 참정권을 다시 말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날로 늘어나 직접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실제 1949년에 어라핀 차야간이 여성최초의 국회의원이 된 이후 1975년 선거에서 16명이, 1986년에는 12명, 1988년에는 10명, 1992년에는 12명이 당선되었으며 타닌정부(1976.10-1987.2)에서는 위몬씨리 참난야웻이 대학성 장관에 취임하는 등 태국최초의 여성장관으로써 정치계에서 남성 못지않는 활동을 했다(Manthana 1998: 167). 작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소설에 투영하여 정치에 미치는 작가와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소설 속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여성의 정치의식을 일깨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자신감 있고 사회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주인공 외뎀을 통해 여성국회의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나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의 공동협력에 의해야 세계의 발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를 하려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

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기 지역구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입후보자는 ... 돈 외에 정치적 소양, 자격, 능력, 그리고 이미지 등을 요구된다. ...말씀씨와 재치나 현실대처능력 또한 요구된다. ... 국회의원이 되려는 여성은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태국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은 단순히 추종자이거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가치관이라는 장막을 뚫어야 한다. ... 세상은 전부터 남성의 것이었다. 세상의 나머지 반이 자기 권리를 사용할 줄 알게 된 지금도 ... 남성과 여성은 반반씩 세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도와서 세계를 건설한다. ... 더 이상 남성의 것도 아니고 여성의 것도 아니다. 현재보다 더 발전되고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Choladda 1986: 622).

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의 정치변동은 경제변동과 함께 사회적 변동을 초래했다. 미국의 영향, 베트남전, 페미니즘의 영향 등은 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급속도로 변하게 했고 이 영향은 그대로 태국소설에 반영되었다. 작가들은 여성의 자립과 자주, 그리고 현실참여를 역설했다.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던 정치도 이제는 여성의 관심사가 되었고, 직접 참여함을 반영하였다. 이제 여성은 인생의 주인이자 설계자로서 현실참여는 남성과 협력하는 속에서 발전해야 함을 촉구했다.

V. 결론: 여성의식의 변화 및 성장과 그 의의

태국에서 전제군주주의 정치체제하에 있었던 고대국가 시대에는 봉건주의 질곡 하에서 이른바 아시아적 정체성이 태국사회를 억누르고 있었다. 태국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제도 속에서 남성들에게 철저히 종속되었으며, 남성과 남성위주사회의 도구나 노리개로 전락된 삶을 살았다. 일부다처제에서 성 도구로 신음하였고,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예속되는 삼중지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인권 개선이나 사회 및 가정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태국 고대의 여성상이나 여성사회의 실상은 고전문학에 잘 그려져 있다.

근대에 들어서서 해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태국사회도 변화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 조류에 따라 태국에 근대화가 일어나고 변혁의 열풍이 몰아쳤다. 근대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고 있었으며, 발전된 서양문물의 대거 유입과 함께 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엇보다도 신식교육의 보급 확대에 의해 태국의 여성사회가 크게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소설 『씨팬딘』 등 근대 문학작품 속에 변혁이 소용돌이치는 당시의 사회상이 여주인공들의 의식 및 활동을 통하여 질실하게 묘사되었으며, 대표적 시대작가들인 덕마이쑈, 아갓담껍 라피팻, 씨부라과 등이 신식 여성상을 앞 다투어 선전하고 신시대 여성의식을 다듬어 제시함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이 시대에 형성되고 또 소설을 통해 그려진 근대적 여성상과 여성의식은 무엇보다도 일부다처제를 부정하여 여성에게 강제된 성적 가정적 질곡을 타파하는데 집중되었으며, 신식교육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및 위상을 고양시키는 데에 한껏 드러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태국 여성의 의식도 크게 발전하였다. 서양에서 유행하고 확대되어온 페미니즘 풍조가 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태국 사회에서도 여성지도층을 중심으로 여성해방을 주장하고 남녀동등권을 목표로 하여 현실사회로 뛰쳐나오는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와 함께 크게 팽창된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및 지위향상이 현대적 신 여성상을 새로이 정립시켜 나갔으며, 이러한 태국사회의 현대적 여성상과 여성의식이 소설에서 리얼하게 묘사되어 나타났다.

한편 씩씩 뚝대로 인해 태국의 민주화투쟁이 성공하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태국의 정치발전과 정치적 현실참여의 열풍을 일으켰는데, 이는 태국의 여성들의 정치참여 촉진으로 확대되었다. 소설에서 작가들은 태국 여성의 정치적 현실참여를 절절하게 묘사하고, 당시 태국의 여성상이나 여성 의식의 변화 성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태국의 여성의식은 시대를 따라 변화해 왔다. 태국 사회의 변화가 민주화나 근대화와 같이 발전을 의미한다면, 태국의 여성상이나 여성의식도 계속 발전해 왔다고 하겠다. 소설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주인공을 통하여 시대의식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러한 태국의 여성상이나 여성의식의 변화 발전이 당시의 소설에 투영됨은 당연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어 : 태국여성의식, 덕마이쑈, 씨부라과, 아갓담껑
라피팻, 태국여성, 태국소설, 보판, 께 쭈랑카낭

〈참고문헌〉

- 라마 2세 외. 김영애 역. 2010. 『썰파 르엥 쿤창쿤팬』. 지만지고전선집.
- _____. 김영애 역. 2010. 『쿤창과 쿤팬의 이야기』. 지만지고전선집.
- Akaddamkeong Raphipat, MJ. 1983. *Lakorn haeng Chiwit*(삶이라는 이름의 극장). Bangkok: Praepitaya.
- Apirak Chaipanya. 2005. “Botbatlaelaksanasatritiprakodnaiwannakamni Tankhongsomdejphramaha samonchaokromphraparamanuchit chinorit(빠라마누춧치노릇대군의 문학에 나타난 여성과 그

- 역할.”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18): 126-151. Burapha University.
- Botan. 1981. *PhuyingkhonnancheuBoonrot*(그 여자 이름은 분룻). Bangkok: Chomromdek.
- Boondeom Phaireoh. 1976.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in Thai Society.” 쫄라롱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oonleua Thepsuwan, ML. 1986. *Wannakam*(문학). Bangkok: Anthai.
- Choladda. 1986. *Phuyingthaewna*(여성지도자). Bangkok: Bannakhan.
- Dokmaidot. 1970. *Kamkao*(원죄). Bangkok: Praepittaya.
- _____. 1970a. *Kwamphidkhrangraek*(첫번째 실수). Bangkok: Praepittaya.
- Dokmaisot. 1971. *Samchai*(세 남자). Bangkok: Praepittaya.
- _____. 1974. *Sattrukhongchaolon*(그녀의 적). Bangkok: Klangwithaya.
- Kukrit Pramoj, MRW. 1963. *Siphaendin*(4대). vol. 1. Bangkok: Praepittaya.
- _____. 1963a. *Siphaendin*(4대). vol. 2. Bangkok: Praepittaya.
- K. Surangkanang. 1969. *Kookhrong*(반려자). Bangkok: Khlangwothya.
- _____. 1969a. *Rewadee*(레와디). Bangkok: Ruamsan.
- _____. 1969b. *Yingkhonchua*(창녀). Bangkok: Bamrungsan.
- _____. 1979. *Bansaihong*(금모래집). Bangkok: Khlangwithya.
- Manthana Baicha. 1998. “Wikronaewthangkanmuangnainawaniyai khongnakkhiensatri Chuang 6 Tulakhom 2519-23 Kumphaphan 2543(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정치적 경향 1973.10.6 -1981.2.23).” 씨나카린위룻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Saisamorn Cheuytrongkarn. 1986. “The Social Status of Thai Women in the Novels of Dokmaisot and K. Surangkanang between 1932-1950.” Graduate School, Chulalongkorn University.
- Seni Saowaphong. 1972. *Khvamrakkhong Wanlaya*(완라야의 사랑).

- Bangkok: Chomromnangsue buadaeng.
- _____. 1986. *Pisat*(귀신). Bangkok: Dokya.
- Sifa. 1988. *Pikulgaemkedkaeo*(피곤깜꼳깨우) vol. 1. Bangkok: Chokchaitheves.
- _____. 1988. *Pikulgaemkedkaeo*(피곤깜꼳깨우) vol. 2. Bangkok: Chokchaitheves.
- Sriburapha. 1967. *Lukphuchai*(사내대장부). Bangkok: phadungseuksa.
- _____. 1986. *Khanglangphab*(그림 저 편). Bangkok: Dokya.
- _____. 1986a. *Songkramchivit*(삶이라는 이름의 전쟁). Bangkok: Dokya.
- Sukanya Tirawanij. 1977. *Prawadnangsuephimnaiprathesthaiphaitai rabobsomburanayasithiraj: 2325-2475*(전제왕정 시대의 태국 신문사:1882-1932). Bangkok: Thaiwattanapanij.
- Thommayanti. 1980. *Satrimailekneung*(영부인). Bangkok: Nabaanwannakam.
- Trisilp Bunkhachorn. 1982. “Adid Pajjubanlaeanakhodnawaniyaithai: Khosangedbangprakan(태국문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Thammasat* 11(1): 88-115; March 2525.
- Udom Rungreuangsri. 1980. *Saphabwannakamthaipajuba*(태국현대소설현황). Bangkok: Silapabannakhan.
- www.sakulthai.com/DSakulcolumnndetailsql.asp (검색일: 2011년 4월 6일)
- (2011. 12. 26. 투고; 2012. 02. 20. 심사; 2012. 02. 21. 게재확정)

<Abstract>

The Social Status and Role of Thai Women in Thai Novels

KIM Young Ai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hanging social status and role of Thai women in Thai novels between 1920s - 1970s. Until the reign of Rama IV of Rattanakosin era, daughters were brought up to be good wives and mothers, strictly educated by their own parents. Daughters of the poor could be sold legally by their parents.

Since 1860s the status of them was better because they had better education. Having the modern(european) education, this consciousness of women of daughters and wives have been changed, especially the consciousness on their rights and duties and social roles as a woman. They had self-confidence and had their own way of life. They dared to break some old tradition such as the arranged marriage by their parents without their consents, *khlum thung chon*. Then worked outside as a school teacher, secretary, writer, and other part-time works as money lender or land broker. Due to modernization and the founded democratic government in Thailand, women had changed to share activities in politics, too.

Key words: Social Status of thai women, Role of Thai Women, Dokmaisot, Sriburapha, MJ. Akaddmkeong Raphiphat, Botan, K. Surangkhanag